법률 개정안 **6** 수감자에게 비자발적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헌법상 조항을 삭제합니다. 입법부 헌법 수정.

★ 법률 개정안 6 지지 발언 ★

법률개정안 6: California의 수감 시스템에서 노동착취 근절

법률 개정안 6에 찬성 투표하세요. 법률 개정안 6은 California 내에서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하고, 수감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도 그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법률 개정안 6은 노예제에 해당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노동을 종식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감자는 존엄성을 가져야 하며, 재활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강제 노동은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안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발적 업무 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 6은 재활을 우선시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합니다. 교도소에서의 강제 노동은 잔인하고 불공정하며, 종종 폭력, 독방 감금, 서비스 거부와 같은 가혹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재활을 저해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법률 개정안 6은 자발적 교도소 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존엄성, 선택권, 재활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수감자는 California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직업 훈련 및 기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제 종식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초당적 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법률 개정안 6으로 알려진 ACA 8은 하원에서 만장일치(68-0),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찬성(33-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California는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허용하는 16개 주 중 하나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 개정안 6은 California수정 헌법 제13조의 허점을 막음으로써 전국적인 운동을 지지합니다. 연방법을 바꾸지는 않지만 California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함으로써 정의를 옹호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기술 개발과 재활을 제공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존엄성에 뿌리를 둔 생산적인 일은 이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 경험을 노력의 증거로 삼아 재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주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과 비자발적 노역을 허용하는 허점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olorado에서 66% 이상(2018년), Utah에서 80% 이상(2020년), Nebraska에서 68% 이상(2020년) 등 상당한 유권자 지지가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Alabama에서 76% 이상, Oregon에서 55% 이상, Tennessee에서 79% 이상, Vermont에서 88% 이상의 지지를 얻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Nevada는 2024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입법가들은 이번 회기에Jeff Merkley 상원의원과 Cory Booker 하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공동 결의안 33과 Nikema Williams 대표 하원의원의 하원 공동 결의안 72를 통해 수정헌법 13조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Lori Wilson, 주 하원의원
California 주의회

Dolores Huerta, 전무 이사
Dolores Huerta 재단

Stephen Downing, 부국장(예비역)
법 집행 행동 파트너십

이 페이지에 인쇄된 주장은 저자의 의견이며 어떠한 공식 기관에서도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법률 개정안 6 반대 발언 ★

법률 개정안 6에 대한 반대 발언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